

農漁村에서의 새로운 要請과 農工人의 役割

朱 學 洙

(農業振興公社 技術本部長)



1. 農漁村에서의 새로운 要請

第1次에서 第5次 經濟開發計劃 施行에 힘입어 高度産業社會에로의 進入과 함께 農漁村에 對한 認識이 달라지고 있다. 其間 政府에서 力點事業으로 積極推進한 結果로 쌀은 不安定하나 마 自給段階에 들어서고 農漁業이 競爭産業으로 浮刻됨에 따라 農業의 概念은 主穀生産 産業이 아니라 市場經濟 原理에 立却한 食品供給 産業으로 認識되어지고 있다. 農漁村은 食糧生産의 基地로서 뿐만 아니라 國民定住空間 그리고 모든 産業의 敷地空間으로 새롭게 認識되어 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近來에 와서 農漁村地域은 生産과 生活, 그리고 文化와 綠地의 場으로서 機能이 多邊化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基本的인 認識의 變化는 農漁村으로 하여금 새로운 役割 즉 國民食糧의 安定的 供給이라는 本來의 役割은 물론, 國土의 合理的인 管理와 保全 및 그 利用, 傳統文化의 保全과 現代的 繼承, 都市人에 대한 綠地空間의 提供등 多角的인 役割까지도 農漁村이 맡아 줄 것을 要請하고 있다.

2. 農漁村의 發展方向

農漁村에 對한 認識의 基本的인 變化는 結局 政府로 하여금 農林水産部門의 投資方向을 農業에서 農業과 農村 그리고 農民에 까지로 轉換케 하는 重要한 契機가 되었다. 그것은 農漁業이 産業으로서 重要한 位置에 있고 農漁村에서도 누구나가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과 農漁民도 地域社會 發展의 主體라는 觀點에서 自主의이고 自發的인 參與意識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農漁業, 農漁村의 開發은 産業間 都農間 階層間 地域間 均衡開發을 위하여 不可避하며 이 部門을 그냥 둔다는 것은 經濟社會 發展에 空洞이 생기고 만다는 判斷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農漁村은 어떤 方向에서 開發되어야 할것인가? 農漁村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사는 住民들이 日常生活의 基本需要를 充足하면서 將來에 對한 希望과 矜持를 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快適한 삶의 空間으로 造成하여 주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農漁村 經濟의 活性化, 地域農業의 能率化, 生活環境의 都市化, 社會福祉 向上 및 文化振興, 그리고 自然環境의 健全한 保全 등 各 分野에 걸쳐서 綜合的으로 開發되어야 할 것이다.

3. 農工人의 役割

農漁村開發의 問題는 開發의 領域이 擴大되고 開發方式이 多邊化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對處해야 하는 技術도 各 部門에 걸쳐서 多邊化하고 高度化하지 않으면 이 問題를 解決할 수 없게 된다. 이를 다시 整理하여 보면,

첫째, 開發領域의 擴大에 對處해야 한다.

먼저 우리 農工技術人은 農林水産部門의 開發領域이 農業開發에서 農漁村開發로 크게 擴大되어 가고 있다는 事實을 좀더 明確히 認識할 必要가 있다. 그것은 開發領域이 時代的 要請에 의하여 점점 轉移되고 擴張되어 가고 있다는 事實이다.

지금까지 農林水産部門 投資의 大宗은 農漁業開發, 그 가운데서도 農業基盤造成과 林業, 畜産, 水産業의 基盤造成에 力點을 두어 왔다. 그러기에 農工技術도 農業用水, 耕地整理, 開墾, 干拓, 排水改善分野의 技術發展에 主眼을 두어 推進해 왔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國家經濟發展에 크게 寄與해 온 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政府의 投資方向은 그 領域이 農漁村 全域으로 擴張될 것이므로 이에 副應하여 農工技術도 生活環境改善, 自然環境의 保全, 文化遺産의 保護, 社會福祉 등 農村의 모든 分野를 開發할 수 있도록 發展되어야 한다.

둘째, 開發方式의 多變化에 對處해야 한다.

開發內容이 多邊化하고 多角化됨에 따라 農工技術도 多樣하게 對應할 必要가 있다고 하겠다.

開發內容이 生産段階의 開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流通段階와 消費段階에 까지 이르러야 하고 더 나아가 農漁村의 工業化와 觀光 및 休養地造成까지 考慮해야 한다. 따라서 農業基盤造成은 물론 農漁村道路, 河川改修, 綠地保全, 生態系保護, 土壤 및 水質保全에 이르기 까지 擴範圍하므로 農工技術도 農業土木에 限定된 分野만으로 對應하지 말고 土木, 機械, 電氣, 建築, 環境, 上下水道, 都市, 道路, 河川工學 分野와 提携하고 農業, 林業, 畜産, 水産, 海洋, 保健衛生, 生物 등의 技術分野에서도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며 또한 技術分野가 아닌 社會, 經濟, 地域開發 등의 分野에서도 支援받는 廣範圍한 技術과 行政 그리고 制度的 側面이 綜合된 開發推進 體系가 形成되어야 한다고 본다.

셋째, 技術의 高度화와 專門化가 따라야 한다.

앞으로의 農漁村 開發技術은 高度화와 專門化를 要請하고 있다. 그것은 開發分野가 多邊化됨과 아울러 多角化되는 反面에 經濟的이고 近代化인 施設을 要望하고 있기 때문이다.

農村道路建設을 한 例로 들어보자 過去와 같이 非鋪裝道路設置만으로도 滿足하던 時代는 점

점 멀어지고 있다. 鋪裝의 方法에 있어서도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나 아니면 兩材質外의 方法으로 鋪裝함으로써 路面이 매끄럽고 耐久性이 強하고 維持管理가 便利하고 費用이 적게 드는 등 그 方法의 選擇에 銳利한 判斷을 要請하고 있고 道路의 路線 하나를 決定함에 있어서도 氣象, 水文, 地形, 地質, 土地利用, 農業 및 社會經濟, 既存道路 및 交通狀況, 土質 및 材料, 用地買收, 支障物 등 聯關된 事項 등을 專門分野別로 具體的인 調査에 따라 分析하여 設計에 必要한 資料를 모아야 하고 또한 地域住民들의 要求事項의 分析, 앞으로 이 道路의 利用度의 豫測 등의 綜合判斷, 그리고 社會經濟開發의 誘發效果 등의 要因을 總網羅한 여러 分野의 專門家가 參與한 綜合的인 判斷아래 計劃을 樹立 設計하여야 하며 따라서 地域社會의 모든 與件에 符合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多方面의 技術人이 參與하여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와 같이 많은 分野에서 參與한 技術人에 依해 施設된 道路일지라도 結果的으로 不必要한 施設, 不便한 施設物이 되어서는 안되며 또한 過多한 工事費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될 것이다. 이러한 不合理性을 排除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技術이 尖端化하고 高度化 되어야 하며 各 分野에 걸쳐서 技術이 專門化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넷째, 開發主役인 技術人으로서의 覺悟를 새롭게 해야 한다.

農漁村開發을 위한 各 部門의 技術中에서 가장 큰 몫을 擔當하여야 할 技術部門은 두말할 것도 없이 農工技術이다. 아무리 開發領域이 農漁業에서 農漁村으로 轉移되고 있다하더라도 開發의 對象이 農漁村地域의 賦存資源임에는 틀림없고 그 가운데에서도 土地資源과 水資源이 開發의 主要目標인 것 만은 틀림없다.

土地와 水資源의 合理的인 開發을 窮極的인 課題로 하는 技術分野가 農工技術이고 그 技術開發을 위하여 全力을 쏟고 있는 우리들 農工技術人은 좋건 싫건 앞으로 農漁村開發을 위한 主役 技術人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農工技術人은 農漁村開發을 위하여 어떻게 對處하여야 할 것인가를 이 時點에서 深度있게 省察해 볼 必要가 있다. 한마디로 綜合開發 概念下에서 農漁村을 開發할 수 밖에 없으므로 우선 農工技術의 各 分野를 專門化하고 尖端化하여야 하며 다음으로는 各界 各層 즉 産學間은 물론 農業土木 外의 他技術分野 全體를 對象으로 하는 技術人과도 共感帶를 形成하는 技術提携와 學校에서는 新技術을 廣範圍하게 綜合的으로 教育을 實施함으로써 技術의 調和를 이루도록 다 같이 힘써가야 할 것이다.